

# Deixis의 생성적 고찰\*

張 奭 鎭

(서울대학교)

## 서 론

문을 언어분석의 제일 큰 단위로 삼아 統辭위주의 기술을 능사로 하는 Chomsky와 그 주변 학자들의 언어이론에서는 discourse(話)의 장면, context(話脈)따위는 變生文法(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더 좁혀 生成意味論(generative semantics)의 테두리 안에서 記述하여 이런 話示素가 人稱, 數, 時制, 指示辭(demonstrative), 叙法(mood), 話階(discourse level)등 統辭의 범주에 작용하는 生成的 과정을 본고에서 고찰코자 한다.

話示素를 (1)과 같이 나누어 그 개별적 記述에 앞서 필자가 구상하는 話構(discourse frame)에서 총체적인 기능을 우선 살피기로 한다.

- (1) a. 人示素(person deixis): 話者(a), 聽者(b)
  - b. 時示素(time deixis): 發話時( $t_0$ ) (事件時( $t_i$ ) 言及時( $t_r$ ))
  - c. 處示素(place deixis): 發話處( $p_0$ )
  - d. 話式素(manner deixis): 해라式(Plain m), ...
- (a, b, ...는 편의적인 약호)

話構(Discourse Frame) 독백같은 경우를 제외하는 보통 話의 장면에서 (2)와 같은 話의 테두리—話構—를 생각할 수 있다.

- (2) 話者(a)가 聽者(b)에게 ...때( $t_0$ )...곳( $p_0$ )에서 ...식(m)으로 「...」하고

말한다/묻는다/명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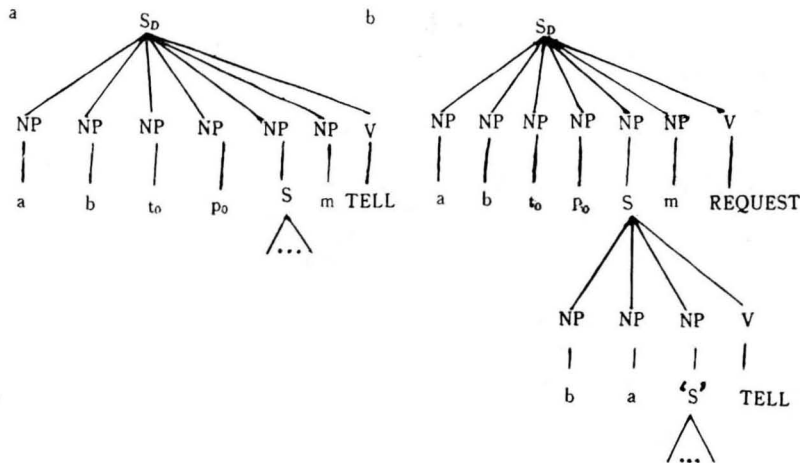
실제 발화는 「...」의 부분이며 그 앞뒤를 話構라고 부르기로 한다. 話構의 요소는 (1)에 든 일련의 話示素 외에 話動詞(discourse verb; 이하 D-動詞)가 있다. D-動詞에는 performative

\* 이 소고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제출한 학위논문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의 제2장의 개요이며 이 논문은 본 「語學研究」 별권으로 나올 예정. 생소한 용어는 영어 다음에 시역을 첨가.

<sup>1</sup> deixis(形容詞 deictic)는 본래 회랍어로 「가리키다, 지시하다」의 뜻. 이에 대한 언어학적 해설에는 Lyons (1968), Weinreich (1963)등 참조. Deixis 외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쓰이고 있다. index(Morris 1938), Shifter (Jespersen 1924; Jakobson 1957), token-reflexive words (Reichenbach 1947), indexical expressions in the pragmatic context (Bar-Hillel 1954).

verb (履行動詞)<sup>2</sup>와 Urmson (1952)의 이른바 parenthetical verb (插入動詞)<sup>3</sup>, 叙想性(modal) 動詞(예: intend, allow)등이 들어간다. 話構는 單文(simplex sentence)의 구조 뿐만아니라 아래 疑問文의 話構에서 보듯이 D-動詞 둘 (또는 그 이상)이 들어 있는 複(重)文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斷定文과 疑問文의 話構는 각각 (3.a), (3.b) 같은 나무 構造 (tree structure)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3)



실제의 發話(utterance)는 引用文(즉 'S')으로 표시되어 있다. 話의 단위인 發話는 話脈(context)이 있고 이 發話에서 話脈을 제거하는 과정—非話脈化(decontextualization)—이 추상적인 文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반대로 이렇게 話脈이 제거된 文을 發話로 바꾸는 과정이 話脈化(contextualization)의 과정이며 代名化(pronominalization), 同名句削除(Equi-NP-Deletion), 再歸化(reflexivization), 같은 變形(transformation)이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관계를 (4)와 같이 그릴 수 있을 것이다.

<sup>2</sup> Performative는 言語哲學面에서 Anstin (1962)에 비롯했고, 언어학에 도입한 것은 Ross (1970), 우리말 분석에 적용한 것은 이흥배(1970) (performative에 대한 「履行」이란 역어도 이흥배).

<sup>3</sup> 영어의 (I) suppose/suspect/guess/wonder와 같은 動詞 우리말 文末의 (斷定文에서의) 「지」가 意味面에서 이에 해당(장석진(1972) 제5장 참조).

<sup>4</sup> 疑問文의 D-動詞를 「묻다(ask)」와 같은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말해줄 것을 (b에게)요청하다. request b to tell a...」와 같이 「말하다(tell)」와 「요청하다(request)」의 두 D-動詞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3)의 구조에서 V를 끝자리에 놓은 것은 우리말이나 일본어 같은 SOV-언어의 경우고 영어같은 V를 첫 자리에 둔다. (McCawley (1970 b)참조) 또한 (3)의 구조에서 여러 NP를 線狀으로 배열한 것은 첫자리가 主語, 다음자리가 間接目的語임을 표시하며 時, 處, 話式 같은 副詞性的의 話素는 意味構造(semantic structure)에서 유도(derive)될 때 主語 NP에 선행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장석진 (1972) 제2장 참조).

(4)



引用된 文('S')이 바로 文의 發話(utterance of sentence)를 표시하는 것으로 文을 發話로 話脈化하는 과정을 시사하고 있다. 意味構造(semantic structure)에서 表面의 統辭構造(surface syntactic structure)로 유도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文을 둘러싼 引用부호(즉 ' ')는 話構와 더불어 消去된다. 話構의 削除는 (5)와 같은 규칙으로 될 것이다.

(5) 話構削去

[X-'S'-X<sub>SD</sub>]

1 2 3 ⇒

O S O

### 1. 人示素(Person Deixis)

보통 話의 장면에서 話者和 聽者は 필수적 요소지만 第三者(들)은 그렇지 않다. 話者和 聽者の 특이성은 (6)에서 보듯이 聽者は 두사람 이상이 될 수 있으나 話者は 설령 몇 사람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나」, 「나」……가 「우리」가 되지 못한다.<sup>5</sup>

(6) a.  $n_1 + n_2 + \dots + n_n \longrightarrow \text{너희}$ b.  $*n_1 + n_2 + \dots + n_n \longrightarrow \text{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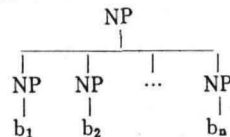
統辭的 범주인 人稱(특히 1,2人稱)이 話示素인 話者, 聽者에 유래함은 많은 언어에 공통된 사실이며 이 人稱에 따르는(單·複)數의 범주도 話者, 聽者の 내면구조에서 기술할 수 있다. 話者, 聽者の 개념은 흔히 말하는 意味素(semantic feature)(예: [±生], [±人])와는 다르며 굳이 特素(feature)로 본다면 話行(speech act)에서 유래하는 話素(discourse feature)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話者, 聽者の 내면구조에 따라 1,2人稱單複數가 유도되는 과정과 그 분류를 보기로 한다.

1.1. 話者和 1人稱. 1人稱單數는 (7.a)에서 보듯이 간단하나 複數는 (7.b)에서 보듯이 그 내부구성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기:<sup>6</sup> IP=1人稱, IIP=2人稱, Sg=單數, Pl=複數, x=「사람」의 인덱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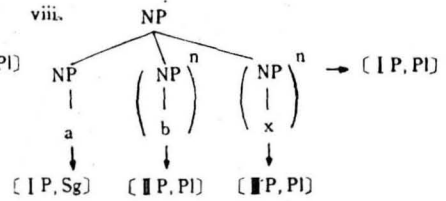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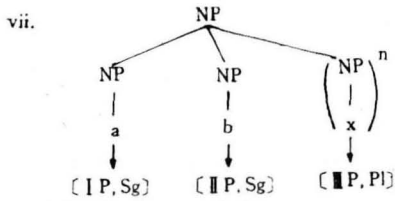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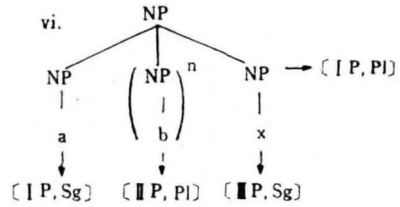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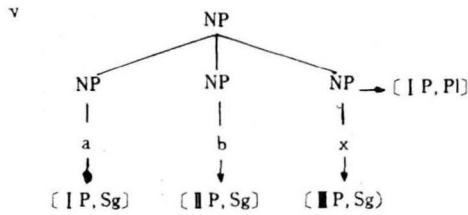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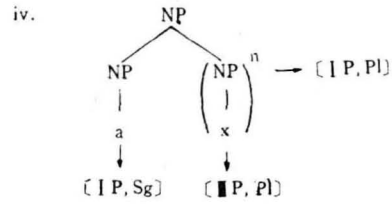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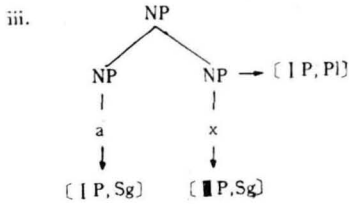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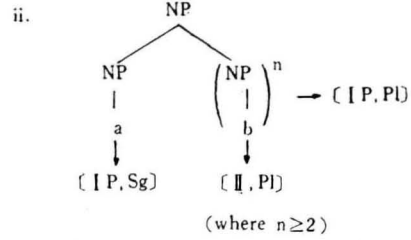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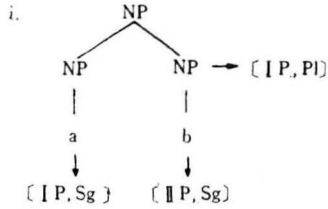
<sup>5</sup> 이 점에서도 話는 話者 위주라고 볼 수 있다.

<sup>6</sup>  $\left( \begin{array}{c} \text{NP} \\ | \\ \text{b} \\ (n \geq 2) \end{array} \right)^n$ 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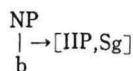
<sup>7</sup> 경상이 아닌 話의 장면에서는 聽者인덱스인 b나 x에 사람이 아닌,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예: 메리(犬), 이리 와! 앉어! ...) 이것은 동물을 人格化(personify)한 것으로 b나 x는 역시 「사람」에 국한된다.

(7) a. 1人稱單數 NP → [IP, Sg]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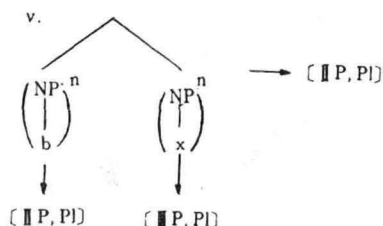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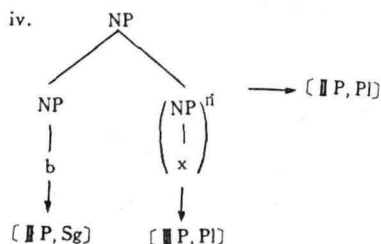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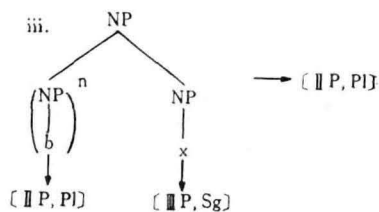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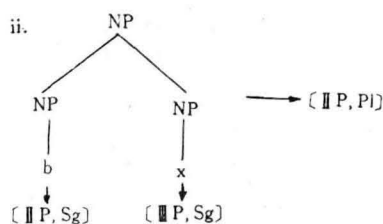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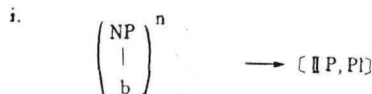


이 8가지 1人稱複數의 분류에서 聽者가 포함되지 않은 (iii)-(iv)를 Exclusive-‘we’, 포함된 그 나머지를 Inclusive-‘we’라고 文法에서 부르고 있다.

## (8) a. 2人稱單數



## b. 2人稱複數



1.2. 聽者和 2人稱. 1人稱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聽者의 내면구성에 따라 (8)과 같이 2人稱의 單複數를 나눌 수 있다.

2人稱을 유도하는 NP의 구성성분에는 話者의 인덱스(즉 a)가 들어있지 않다.

1,2人稱 複數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특기할 점은 (7), (8)에서 본 바와 같이 複合된 NP(conjoined NP)를 세트 이론(set theory)적인 結合(union)<sup>8</sup>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만일 세트 이론적 해석이 아니라 複合 NP의 구성 NP가 개별적 人稱으로 유도되면 (7.b), (8.b)의 구조에서 橫으로 명시된 人稱과 複數 대신 下로 명시된 人稱·複數가 된다는 점이다. 1,2人稱과 數는 (9)에 보인 순서로 명시 될 수 있을 것이다.

- (9) 「사람」을 인덱스로 하는 NP<sub>i</sub>가 있을 때: (1) NP<sub>i</sub>가 話者 人稱(즉 a)를 포함하고 있으면 「1人稱」, 複合 NP이면 「複數」, 그렇지 않으면 「單數」; (2) NP<sub>i</sub>가 아직 人稱이 명시되지 않고 聽者 人稱(즉 b)를 포함하고 있으면 「2人稱」, 그리고 複合 NP이면 「複數」, 그렇지 않으면 「單數」.

<sup>8</sup> 세트 이론적인 結合(union)은  $x_1 \cup x_2 = \{x_1, x_2\}$ 로 예시할 수 있으나 언어학적인 「세트」의 개념은 수학에서 말하는 「세트」와, 같지 않다는 점을 McCawley (1968)는 지적하고 있다. 즉, 수학에서는 세트의 멤버가 없는 빈 세트(empty set:  $\{\emptyset\}$ ), 또는 멤버가 하나 밖에 없는 세트도 허용되나 이 人稱의 複數를 규제하는 세트는 둘 이상의 멤버를 요한다.

## 1.3. 1,2人稱代名詞와 話式素(Manner Deixis).

위에서 1,2人稱單複數가 유도되어 나오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人稱에 따르는 여러 形態(예: 나, 저, 너, 당신, 등)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人稱代名詞의 形態는 우리말에 있어서 話者和 聽者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話階(discourse level)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話式素의 하나로 설정한 話式素가 統辭的인 話階를 유도하고 아울러 1,2人稱의 代名詞化가 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話者が 聽者에 대하는 話式이 몇이 있고 이에 따르는 統辭的인 話階가 몇이 있느냐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또 분석의 기준에 따라 異論이 여럿 있을 수 있겠으나 文末의 지나 요를 話階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sup>9</sup> 아래의 다섯: (1)해라 (2)해, (3)하게, (4)하오, (5)합시오로 정하여 각각(意味를 참작하여) plain, intimate, familiar, blunt, formal이란 話階로 부른다.<sup>10</sup> 話者が 聽者에 대해서 「말하는 式(manner of speaking)에 따라 話階가 규제되고 人稱代名詞形이 정해 진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統辭위주의 文法에서는 解釋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形式化하여 기술할 수 없다.

話式을 규제하는 요인으로는 (1)친족관계 (2)사회적 지위관계, (3)연령관계와 같은 外的관계와 話者和 聽者간의 친소의 정도 즉 紐帶(solidarity)와 같은 內的(심리적)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話階의 기술은 社會言語學, 心理言語學의 연구를 요하는 것으로 이런 인접학문간의 연구가 미비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기술은 기대하지 못하나 본고에서는 話式(따라서 話階)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形式化를 시도해 본다. 예를 들어 話者和 聽者간에 「父—子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 관계는 (10)에 보인 바와 같은 과정으로 話式化한다.

(10) Lower(a,b,K)→Formal(m) Polite(m)

즉 a가 b보다 친족관계(K)에 있어서 낮으면 話式은 formal하거나 polite하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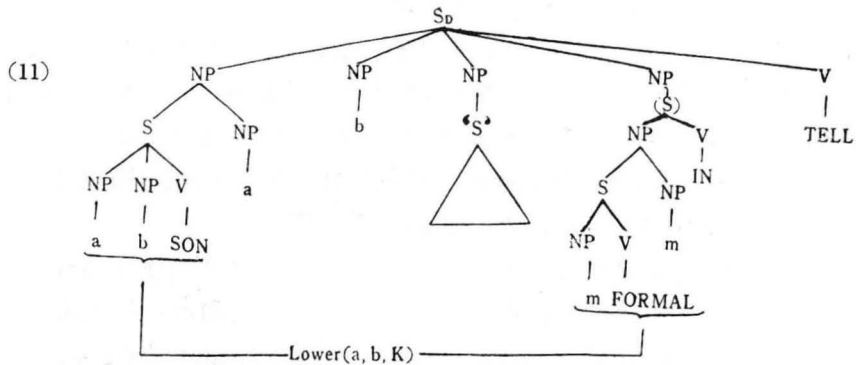
이 관계를 전술한 話構에서 도식화하면 (11)과 같다.<sup>12</sup> (時示素, 處示素 표시는 생략)

<sup>9</sup> Martin et al (1969)은 「(하)지」를 casual level이라 부르고 「해요」(「해+요」)(intimate+polite)를 polite level (엄격히는 intimate polite level)로 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나가면 「하지요」는 casual polite level, 「하네요」는 familiar polite level이라 부를 수 있다. 「요」는, 본고에서는 polite manner의 話式으로 보나 별개의 話階로는 보지 않는다. 文末의 「지」의 기능은 話者が 聽者에 대한 話式이 아니라 話者が 話의 내용에 대하는 태도 즉 斷定이 아닌 推定(supposition)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話階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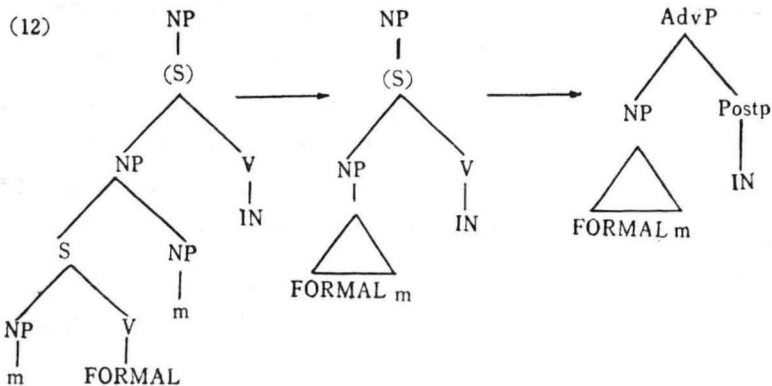
<sup>10</sup> 이 명칭은 Martin (1954, 1968)을 따른 것이나 'authoritative' 대신 'blunt'라 하였다. (국응도(1969):는 'plain'을 'blunt'라 부르고 있다.)

<sup>11</sup> Formal(또는 Polite)한 話式을 규제하는 조건을 더 예시하면 Lower(a,b,K) Lower(a,b,S) Younger(a,b) (Equal(a,b,S) & Solid(a,b))→Formal(m) Polite(m). 話者が 聽者보다 (1)친족관계(K)에서 낮거나, (2)사회지위 관계(S)에서 낮거나, (3)年下이거나, (4)兩者가 사회지위 관계에서 동등하되 紐帶(Solidarity)가 없으면 話式은 formal하거나 Polite하다. (다른 話式에 대한 유사한 形式化에 대해서는 장석진 (1972) 제2장 참조.)

<sup>12</sup> (11)의 나무 構造에 대해서 특기할 점: (1) NP는 인덱스와 그 NP의 記述(NP-description)부로 되어 있다. (NP가 關係節(relative clause)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Bach (1968), 인덱스와 NP-description에 대해서는 McCawley (1967, 1970a)참조. (2) 「아들」을 (大文字로)SON이라 한 것은 어떤 語彙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概念을 표시, SON을 賓辭(Predicate)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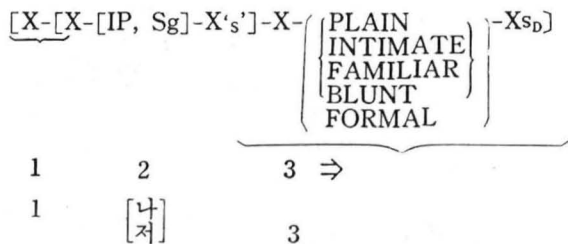
(11)의 話式的 NP는 表面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유도과정으로 副詞句가 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 話式素에 따라 1, 2人稱代名詞의 形態가 규정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은 規則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1, 2人稱의 複數도 이에 준한다.)

### (13) 人稱代名詞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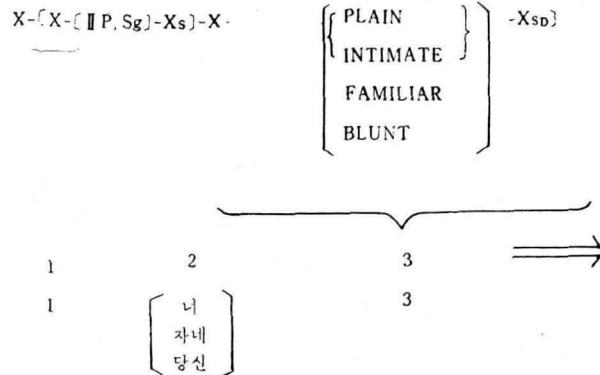
#### a. 1人稱 單數



리에 놓은 것은 繫辭(copula)가 삽입될 수 있을 뿐더러 SON은 a의 b에 대한 관계를 敘述(predicate)하는 것으로 본 것.

<sup>13</sup> formal manner (즉 합시오體)에 저로 국한하였으나 요새 나가 쓰이기도 한다. 나로 균일화되어가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3人稱으로도 쓰이나 여기서는 2人稱으로 쓰이는 것에 한 것이고 부부간에 쓰이는 경우는 이 話式에서 벗어 난다. 따라서 (13)에서 보인 對應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못된다.

## (b) 2人稱 單數



2人稱 代名詞化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1人稱의 경우와 비교할 때, formal한 話式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말에서 聽者가 뒷사람일 경우 代名詞를 못쓰고 그대신 「선생님」 「형님」등을 쓴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음 이 2人稱代名詞의 代用(substitution)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1.4. 2人稱代名詞의 代用. 영어에서도 you 대신 Your Majesty, Your Highness, Your Excellency 등이 쓰이고 1人稱에서 your humble servant, this child; (글에서) the author, the present writer 등이 쓰이나 어디까지나 고정된 표현에 그치지 우리말에서처럼 광범하게 쓰이지 못한다.<sup>14</sup> 聽者가 뒷사람인 경우는 代用語를 쓰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2人稱代名詞 (너, 자네, 당신) 외에 임의로 代用語를 쓸 수 있다. 설명의 편의상 다음의 話의 장면을 생각하고 그 意味構造에서 2人稱代用語가 生成되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14) a. (미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내일 가십니까?

b. (아버지가 미아에게) 그래. {너 / 미아}도 가겠니?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할 때 2人稱代名詞를 못쓰고 「아버지/아버님」을 代用해야<sup>15</sup> 하며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 「너」를 쓰거나 이름을 代用할 수 있다. (14.a)의 意味構造를 생각할 때 그 話構에는: 「話者(a)는 미아(라고 불러온)다」; 「聽者(b)는 a의 아버지다」라는 話人素에 대한 記述이 들어 있고 聽者에 대한 이 記述이 複寫(copy)되어 發話부분 (즉 'S')에 삽입되

<sup>14</sup>. 우리말 1人稱의 경우는 「小人」, 「小生」, (일본어의 「ボク(僕)」의 원 뜻)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라든가 「本人」 「이 사람」 또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엄마」 등 代名詞의 代用이 있으나 2人稱의 경우처럼 광범하게는 못 쓰인다.

<sup>15</sup>. 영어에서는 아버지를 呼格(vocative)으로 쓰고 you를 다시 써야 한다.

Father, are you going tomorrow?

Are you going tomorrow, father?

\*Is/are father going tomorrow?

呼格的 生成과 意味構造에 대해서는 장석진 (1972) 제2장 참조.





엔 話構의 b의 記述 (즉 「b는 미아(라고 불리운)다」)가 複寫되어 任意로 話中 b를 가진 NP에 삽입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2. 時 示 素

현재, 과거 미래라는 개념은 話의 장면에서 기술할 때 發話時( $t_0$ )를 軸(axis)으로 하여 事件時( $t_i$ )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a. 현재:  $t_i$ 가  $t_0$ 와 同時(contemporaneous)

b. 과거:  $t_i$ 가  $t_0$ 에 先행(prior)

c. 미래:  $t_i$ 가  $t_0$ 에 後행(posterior)

이 두 시점  $t_0$ ,  $t_i$  외에 言及時( $t_r$ )가 작용하여 이 세 時點의 상호관계에 따라 개별언어에 특유한 時制(tense)라는 文法범주를 형성하게 된다.<sup>18</sup>

時制의 정의가 개별언어의 統辭, 形態의 表面構造의 특징에 따라, 또 分析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영어의 時制, 우리 말의 時制가 몇으로 나뉘느냐의 문제는 統辭 위주의 文法에서 쉽게 합의할 볼 수 없는 것이다.<sup>19</sup> 「進行」「完了」같은 意味면을 고려하여 相(aspect)이라는 統辭범주도 재래 文法에서 취급하고 있느니 만큼 時制만을 논한다는 것은 意味면에서 볼 때 큰 의의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時示素를 기점으로 하여 意味構造에서 시간관계가 어떻게 표시될 수 있으며 時制가 어떻게 生成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7)과 같은 話의 장면에서 發話내용에 들어있는 時間( $t_i$ )은 發話時( $t_0$ )에서 언급할 때 「 $t_i$ 는  $t_0$ 에 하루 선행한다」<sup>20</sup>는 관계에 있다.

(17) (a=Bill, b=Mary.  $t_0$ =1972.8.30.  $t_i$ =1972.8.29.  $p_0$ =Chicago)

‘John came here yesterday.’

이 意味構造를 話構를 포함하여 대충 (18)과 같은 나무構造로 표시할 수 있다.

(18)에서 S를 직접 支配(dominate)하고 있는 NP의 구조가 關係節(relative clause)의 구조를 갖고 있고 ‘YESTERDAY’라는 의미가 (19)와 같이 유도되어 영어의 yesterday(우리말의 어제)로 語彙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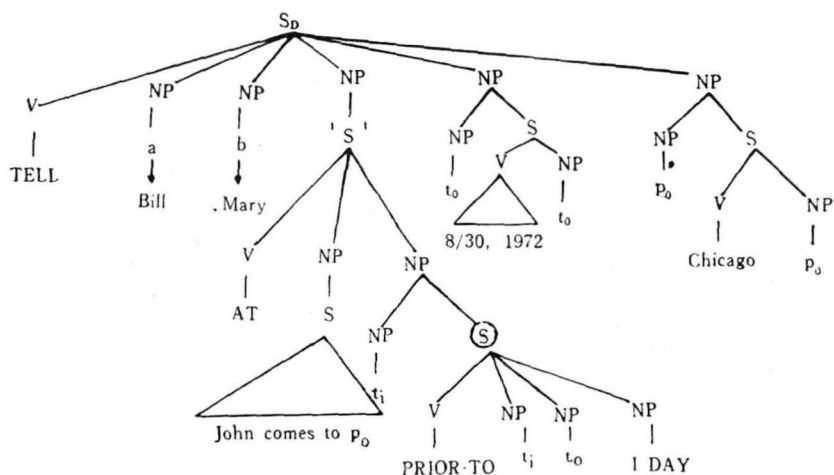
17. 「내일 가십니까?」가 (14. a)와 동일한 話脈에서 「아버지」를 聽者로 하는 것이니 同名句削除(Equi-NP-deletion)가 複寫에 의한 「아버지」 삽입에 선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18. 이 세 時點의 상호관계와 時制에 대해서는 Reichenbach (1947) 참조.

19. 動詞의 屈折(inflexion)에 기준을 두어 過去와 非過去(nonpast) 둘만을 영어의 時制로 인정하고 have+pp. (이른바 完了時制)를 tense phrase로 be+V-ing의 進行形을 extended phrase로 보는 Jespersen(1924)의 분류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도 「겠」을 時制에 넣어서 現在, 過去, 未來로 三分할 수도 있고 제외하여 二分할 수도 있고 -있-었-의, -있-었-겠- 등의 形態를 고려하여 時制 수를 확장할 수도 있겠다.

20. 여기서  $t_0$ ,  $t_i$ 는 ‘DAY(日)」를 단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더 엄밀히 분석하면:  $t_i$ 는  $t_0$ 가 들어있는 日에 1日 先行하는 일( $q_1$ )에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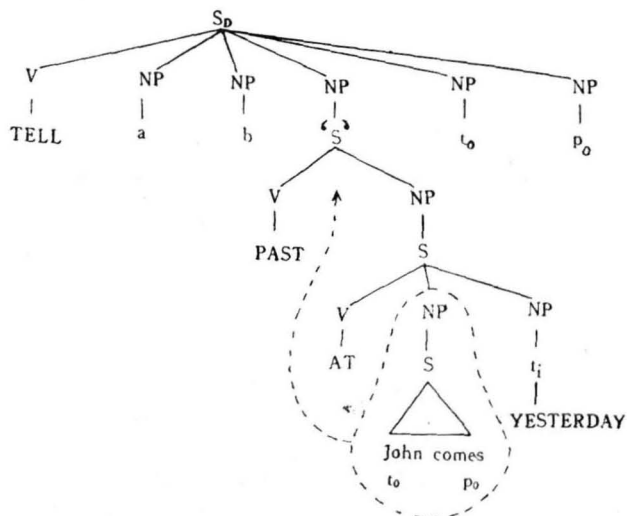
(18)



(19)  $t_i$  (s  $t_i$  is prior to  $t_0$  by 1 day) → YESTERDAY → { yesterday  
어제

다음 「過去」라는 時制가 生成되는 과정을 (18)의 意味構造에서 보면  $t_i$ 의 記述부의 'PRIOR-TO'라는 賓辭가 複寫되어 보다 높은 賓辭자리에 삽입되어 'PAST'로 나타난 것으로 (20)와 같은 구조를 볼 수 있다.<sup>21</sup> 여기서 고려할 문제는 (18), (20)의 두 構造에서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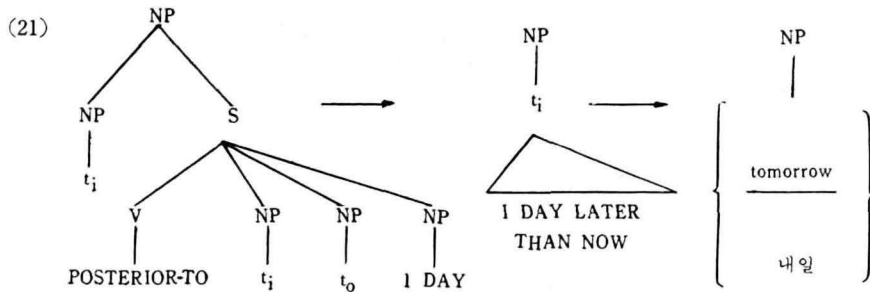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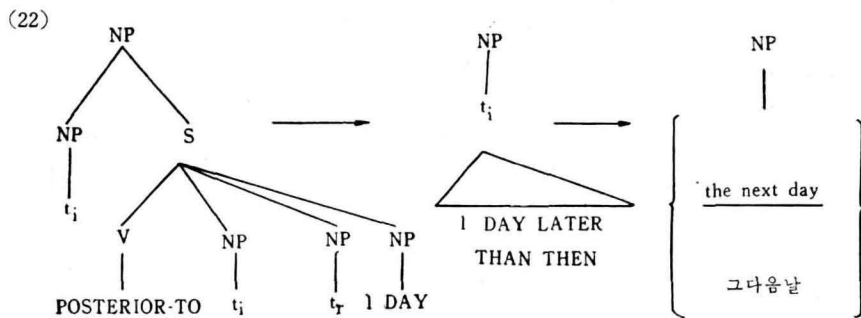
<sup>21</sup> 時制형성에 대해서 McCawley (1971)는 時副詞(time adverb)의 代名形카피가 賓辭자리에 삽입되어 형성되는 것이라 보고있으며 이 時制와 時副詞의 관계가 PIE(印歐祖語)에서 相補分布에 있었고 印歐語의 발달과정에서 이 時副詞의 어떤 特素가 複寫되어 動詞에 첨가하여 時制가 생겼다는 Kiparsky (1968)를 인용하고 있다.

것을 意味表示의 기점으로 보느냐는 것이다. 生成意味論派에서 하듯이 (20)에서 출발하면 (18)은 같은 意味表示지만 (20)이전, 즉 時示素( $t_0$ )를 意味表示에 직접 도입한 단계의 構造라 할 수 있다. (20)의 유도과정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점선부 NP가 主語 높이기(subject raising)의 變形에 의해 위 S에 올라가 붙게 되고, 남은 부분은 가지가 정리되어 (tree pruning) 表面 構造에서 副詞句(AdvP)가 되고, 'COME'은 賓辭높이기(predicate raising)에 의해 'PAST'와 결합하여 came으로 語彙化된다. (PAST-COME→came)

이상 간단히 時示素인 發話時( $t_0$ )가 事件時( $t_i$ )와의 관계에서 yesterday(어제)의 유도과정과 時制의 형성을 意味構造에서 살폈다. 예를 더 들어 tomorrow(내일)의 意味構造와 유도과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發話時( $t_0$ )를 軸으로 하지 않고 發話부의 言及時( $t_r$ )를 軸으로 하는 the next day(그 다음날)은  $t_0$ 대신  $t_r$ 를 써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 處示素(Place Deixis)

話의 장면에서 話者와 聽者의 發話 장소 내지 거리의 近(proximal), 中(medial), 遠(distal)으로 우리말의 이, 그, 저 (또는 일본어의 코, ソ, ア)가 쓰이고 영어에서는 遠, 近으로 이분화하여 this, that (here, there)가 쓰인다.

近, 遠의 두 거리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話者와 聽者의 發話 장소를 軸으로 하는 處示素를 (23)와 같이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原形「때, 날, ...」에는 이, 그, 는 붙을 수 있으나 (예: 이 때/날, 그 때/날) 「저」는 붙지 못한다 (예 저 때/날, cf. 접대)<sup>25</sup> 시간에 붙는 「이, 그」는 원래 指示가 아니라 前述에 言及하는 기능이겠으나 인식과정에서 시간을 距離화하여 방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sup>26</sup> 「이 때」는 「그 때」보다 더 가깝고 긴박한 (immediate) 시간관념을 나타낸다.

#### 4. 결 론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의 統辭論 위주의 言語記述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없는 人稱, 人稱代名詞, 話階, 時制, 指示辭등을 話의 장면에 수반하는 話素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表面의 統辭構造의 生成과정을 意味構造에서부터 고찰하였다. 아직 이런 記述의 모델이 없는 현시점에서 이 소고에서 시도한 것이 소잡하고 잠정적인 시안이라 하겠으나 앞으로 言語記述이 이와같은 방향 즉 文에서 話, 形態에서 意味 나아가서는 言語使用 (language use)으로 폭 넓게 變生文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言語使用은 말할 것 없이 意味에 대한 연구가 아직 言語記述의 문턱에 제대로 들어서 있지 못한 言語學의 현황이라 해서 形態(form)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있는 그 연후에 意味와 使用을 고려할 수 있다는 Chomsky (1971)의 주장은 이제 그의 competence와 performance의 兩分論과 함께 재평가되어야 한다.<sup>27</sup>

#### 참 고 문 헌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 Emmon 1968. 'Nouns and Noun Phrases,' in Bach and Harms. 1968.
- and Robert T. Harms. eds. 1968.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Bar-Hillel, Yehoshua. 1954. Indexical Expressions. Mind 63. 359-79.
- Campbell, Robin and Roger Wales. 1970.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in Lyons (1970).
- Chang, Suk-Jin. 1972.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homsky, Noam. 1971. 'Empirical Issues i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al Grammar,' to appear in S. Peters ed. Goals in Linguistic Theory.

<sup>25</sup>. 일본어에서는 「저+때」에 호응하는 アノトキ가 가능.

<sup>26</sup>.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앞, 뒤」「前, 後」가 방향을 뜻하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앞날, 훗날. 後日」이 (未來를 뜻하고) 「前날」「前日」이 過去를 뜻하는데 「앞」과 「前」은 同意면서 「날」이 붙으면 未來와 過去의 反對로 쓰인다.

<sup>27</sup>. Grammatical competence와 communicative competence로 세분하는 이도 있고 (Campbell and Wales (1970) 참조.) Competence와 Performance의 兩分을 부정하고 言語使用을 포함하는 言語機能 (language function)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Halliday (1970) 참조). 言語使用과 話脈을 變生文法의 테두리에 도입하는 최근의 시도에는 Gordon and Lakoff (1971)참조.

- Davidson, D. and G. Harman. eds. 1972.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New York: Humanities Press.
- Fillmore, Charles J. and D. Terence Langendoen. eds. 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Gordon, David and George Lakoff. 1971. *Conversational Postulates*. Papers from the 7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63-84.
- Greenberg Joseph H. ed. 1963.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iday, M.A.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1970).
- Jacobs, Roderick A. and Peter S. Rosenbaum. eds. 1970.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Ginn and Co.
- Jakobson, Roman. 1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Jespersen, Otto. 1924.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iparsky, Paul. 1968.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4:30-57.
- Lee, Hong 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erformatives, Complementation, Negation, Causation*. Ph. 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Lyons, John.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 \_\_\_\_\_. ed. 1970.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 Middlessex: Penguin Books.
- McCawley, James D. 1967. Meanings and the Description of Language. *Kotoba no Uchu* 2:9. 10-18; 10.38-48; 11.51-57.
- \_\_\_\_\_. 1968 'The Role of Semantics in a Grammar,' in Bach and Harms (1968).
- \_\_\_\_\_. 1970a. 'Where Do Noun Phrases Come From?' in Jacobs and Rosenbaum (1970).
- \_\_\_\_\_. 1970b. English as a VSO Language. *Language* 46. 286-99.
- \_\_\_\_\_. 1971. 'Tense and Time Reference in English,' in Fillmore and Langendoen (1971).
- Martin, Samuel E. 1954. *The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_\_\_\_\_ and Y.-S. C. Lee. 1969. *Beginning Kore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orris, Charles W. 1938.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ichenbach, Hans.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Macmillan.
- Ross, John R. 1970. 'On Declarative Sentences,' in Jacobs and Rosenbaum (1970).
- Ross, 1972. 'Act,' in Davidson and Harman (1972).
- Weinreich, Uriel. 1963. 'On the Semantic Structure of Language,' in Greenberg (1963).

## 論評 및 討論

梁橫錫: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discourse frame 을 보았는데, (2)를 다시 보세요. discourse frame 의 하위분류를 몇가지로 설정해 나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려는 결국은 declarative sentence나 interrogative sentence 나 suggestive sentence나 이러한 식으로 나갈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고 하니 결국은 performative analysis의 performative frame 과 discourse frame 을 거의 동일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한계점에서 다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대담한 discourse가 아니고 소극적인 discourse 한계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의 D-frame Deletion(Discourse Frame Deletion)은 따지고보면 performative deletion 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Ross의 Performative Deletion이—저도 「어학연구」에 쓴 일이 있습니다 마는—어떠한 경우에 deletion 이 되느냐가 적지않은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optional 나 obligatory나? optional 이라면 언제냐? 이것이 적지않은 문제로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때는 performative deletion 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넣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performative deletion 이나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D-frame deletion 은 optional 이나 obligatory 나 언제 optional 이나 등등이 적지않은 문제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6)에서 Person Deixis 에서  $You_1 + You_2 + \dots + You_n = You_{p1}$  이 되는데  $I_1 + I_2 + \dots + I_n \rightarrow WE$  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되지요. 이걸 내가 이 자체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고, 장선생님께서 이 설명을 discourse 가 speaker 중심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의 어떤 재미있는 설명이 숨어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당장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는 앞으로 더 연구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e가 이렇게 나왔는데, 소위 우리들이 종래 말하는 editorial ‘we’나 preacher’s ‘we’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즉 semantically singular, syntactically plural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문제 그 자체의 formalize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이지 내가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잡지 New Yorker에서는 자기들을 editorial we 로 표현할때 ourselves 하지 않고 ourself 라 합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선생님께서 아까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we가 될 때에 첫째 person 하고 animal 하고 결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됩니다. 개를 이렇게 안고 가면서 May we come in?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우리 말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eech level에 있어서 장선생님이 말씀하신 Manner Deixis 에서는, 예를들자면, “나는 선생이지, 그대는 학생이지” 하는 ‘지’와 ‘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S.E. Martin 과 견해가 다릅니다. Martin은 ‘요’를 하나의 polite level 로 봤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어디에나 이것은 볼 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다 되니까. 또 전라도 방언인가 어느 방언에서는 ‘야’도 있습니다. ‘그런다야’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날씨좋다야’라고 합니다. ‘요’하고 ‘지’도 결국은 speech level 이니까 Manner Deixis 의 하나의 요소로 넣는 것이 옹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을 보십시오. 장선생님은 Lower(a.b.K) 이렇게 쓰셨었는데 기왕에 symbolic logic의 formalism 을 안중에 둔다면 K가 친족관계든 사회신분관계든지 무슨 관계에 있어서든지 왜 X의 관계로서  $(a < b/X)$  또는  $a > b$ 로 하면 소위 기호논리학에 정통으로서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minor proposal입니다.

그 다음에 competence와 performance 이야기를 장선생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요즈음 Chomsky에서도 이 구별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사람들이 하다가 해결이 안되면 performance라 하여 책임을 안진다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예를들면,

{ I have...uh... \$100.  
I have...oh... \$100.

이 두 가지 문장을 비교 할 때 종래에는 uh와 oh를 performance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competence에 이것을 끌어넣습니다. 이 uh와 oh는 interjection 이지마는 뜻이 다릅니다. (uh)는 exactly, oh는 about를 표현하니까 이것은 rule-governed phenomena이므로 이것은 performance가 아니고 competence 이거든요. 그러니까 performance의 세계가 점차 competence의 세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어영문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는 이것은 Deixis와는 별도로 competence v.s. performance에 관해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남았는데요. 이 Deixis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인데 장선생님이 말씀 안드린 것을 첨가하고 끝내겠습니다.

Walter Clonkite 하머는 미국의 정세를 좌우하는 news announcer입니다. 그 사람은 I'm W. Clonkite, This is W. Clonkite의 두 가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This is는 라디오로 방송할 때 씁니다. T.V.에서는 I'm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간단히 무슨 performance뿐이 아니고 모든 이런 것이 Deixis 연구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선생님께서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날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Chomsky가 지금 수정된 표준이론(Revised Standard Theory)이나 확장된 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에 있어서는 자기 위치에 대해 Jackendoff, Emonds, Dougherty 등등의 제자들의 제의에 의해서 자기의 모델을 굉장히 바꾸었는데, 사실 그 모델의 정신으로 간다며는 모든 지금 우리가 생성 의미론에서 말하고 있는 X라는 현상은 다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language proper나 form proper만 가지고 자기의 영역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장선생님이 여기에 모두 쓰신 것은 interpretation으로 소급해 올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선생님은 생성의미론에서 interpretation은 이것만이다 하셨지만, 나는 둘다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피장파장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夷鎭: '지'하고 '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는 화계(話階, discourse level)에는 넣지 않고 polite manner에다 넣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만 manner라고 하는 deictic element가 화계를 설정하는데 5 levels로 보고 이밖에 polite manner가 별도 '요'로 나타낸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polite하다는 것과 이와 대립되는 것, 또 polite하고 formal하다는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해보았느냐 하면 '요'라고 하는 것은 '해' 다음에서 '해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차도 있겠지만) '합니까요, 하네요, 하지요'와 같이 formal한 데나 familiar한 데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polite manner를 나타내되 화계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manner에서 제가 한번 고려했던 것은 회상의 '더/디/...' (하더라, 합디다)를 기술할 때 unmarked된 indicative manner에 대립시켜 retrospective manner라는 화식(話式: 이것은 고영근 선생의 용어이며 語式이라고 부른 이도 있다.)을 설정해서 manner deixis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의미 구조에 표시한다는 점에서 "a recall 's'" (즉 a가 's'를 회상하다)라는 '회상'식 문장을 분석했습니다만.

'지'라고 하는 것은 화계에선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에는 (여러 상관된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분이 오지!'에 있어서 '그분이옵니다/오네/...'와 같은 청자와 화자의 관계성에서 정해지는 화계와는 전연 별도의 화(話)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단정 아닌 추정(supposition)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D-frame이라고 하는 것이 performative sentence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D-verb에는 Austin이나 Ross의 performative verb 뿐 아니라 Urmson이 말하는 일종의 parenthetical verb—guess, suggest, suppose 등—단정 (assertion)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동사도 들어 있어 ‘그분이 오지’ (He will come, I suppose.)는 대충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에서 유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b a tell b ('s' × come) — a suppose ('s' × come))

표면의 통사관계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I suppose’로 뒤에 붙고 우리 말에서는 ‘지’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오지’하는 긍정문에서의 ‘지’는 화자가 청자에 대하는 manner of speaking에서 유래되는 화제와는 별도로 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화자의 단정이 아닌 추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지’는 화제와는 분간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긍정문에서는 위와 같이 ‘지’의 의미구조를 보았는데 기타 문형—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에서 ‘지’가 달리 쓰이는 점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려는 ‘그분이 오지?’ 할 때에 ‘내가 그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겠고, 명령문에서 ‘네가 가지!’ 할 때는 ‘네가 가(라)!’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illocutionary force랄까 modality의 강도가 약간 약화된, 즉 어떤 scale이 있다며는 ‘가(라)!’ 대신 ‘가지!’를 쓸 때에는 그 scale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suggest, request, demand 그밖에 order나 command가 있겠는데 이것을 전부 명령문이라고 통사상 부르고 있지만 실제 의미면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점까지 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QUEST’나 ‘COMMAND’라는 의미가 있다면 영어에서 ‘request’나 ‘command’라는 어휘, 우리말에서 이에 해당하는 어떤 어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던 Green 같은 이는 order, request, plead, suggest등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통사·음운면에서 연구했는데 order라고 할 때에는 order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지휘관이나 상관이 부하한테 할 때에는 order가 되지만 부하가 상관한테 order를 할 수 없다든가, order에는 ‘please’가 붙지 못한다든가 하는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문에서는 suggest와 propose의 D-verb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했을 때는 suggest나 propose나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let’s go’ 할 때의 ‘우리가 가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자’고 할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propose에서부터 suggest로 modality가 약화된 것 같습니다. ‘please’가 order, command에는 못 쓰이고 명령문에서 ‘please’가 씌어졌다면 이것은 이미 ‘명령’하는 문장이 아니라 ‘부탁’ 또는 ‘애원/청원’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제발’ 같은 말에서 유사한 기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order, request, plead등을 분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의 의미를 여러 문형을 놓고 modality면에서 생각해 봤고 이런 각도에서도 앞으로 의미의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discourse verb에 속하는 것으로는 performative verb가 있고 그밖에 suppose, guess, wonder 같은 parenthetical verb와 may, will, intend 같은 modal verb가 있습니다. 그리고 Ross의 performative sentence는 top-most에 나오는 것의 문장에 국한되고 performative verb도 그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D-frame에서는 request 아래에 tell (의문문의 의미구조에서)이라든지 will (명령문의 의미구조에서)이 embed될 수 있습니다. 또 「지」의 의미구조에서 보듯이 D-frame은 두 D-sentence가 병기(並起)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performative analysis와 다르다는 점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